

# 원격고등평생교육 국내 정책 동향

2026. Vol.2

## 정책동향 1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

## 정책동향 2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앵커)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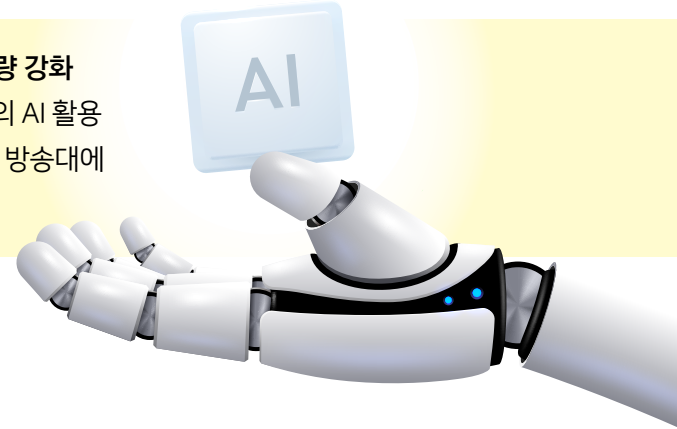


## 정책과제

해외 대학 시 에이전트 사례

#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

★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26.3.11.). 이번 호에서는 전 국민의 AI 활용 역량 확보를 위해 설계된 다양한 정책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방안이 방송대에 시사하는 바를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 1 개요

- 국가적 AI 기술 및 인프라 도입을 넘어, 모든 국민이 AI를 일상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26.3.11) 수립
- 해당 방안에서는 ①국민 누구나 기본적으로 AI를 쉽게 접근, 학습, 적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②생애 주기별·대상별 맞춤형 AI 교육을 제공하며, ③일상에서 AI를 활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 설정
  - 이하에서는 <AI 접근, 학습, 적용 기회 제공>과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AI 교육 제공>의 과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탐색

## 2 누구나 기본적으로 AI를 쉽게 접근·학습·적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기회 제공	“누구나 AI에 쉽게 접근”	“누구나 쉽게 누리는 AI 강의”	“누구나 AI를 일상에 적용”	
	독자AI서비스 확산 지원	모든 AI 교육을 한곳에 모으고, 부담없이 학습토록 지원	온라인 AI실습환경	지역별 AI실습센터
	「기본적AI」 제공	「우리의 AI 러닝」구축	「모두의 AI 실험실」	「AI 라운지」

- **(독자 AI 서비스 확산 지원)** 대국민 접점을 가진 플랫폼 및 서비스 기반의 「**기본적 AI**」 제공·확산
  -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국내 인공지능 기술로 챗GPT, 제미나이 등과 같은 독자적 AI 모델을 개발해 전 국민이 사용하도록 하는 프로젝트. 1차 평가 결과 3개 기업(LG AI연구원(K-EXAONE), SK텔레콤, 업스테이지) 통과. 2026년 상반기 최종 결과 발표 예정
  - 각종 AI 경진대회 개최로 독자 AI 모델 활용,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AI 서비스 활용 등 각종 사업의 병행 추진으로 서비스 확산 지원
- **(대국민 AI 학습 서비스 제공)**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AI 교육프로그램을 통합하는 온라인 플랫폼 「**우리의 AI 러닝**」 구축(6월) 및 대국민 서비스 시행(7월~)
  - 본인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받아 자유롭게 이용 가능. 민간 우수 AI 콘텐츠도 8월부터 단계적 확대 제공

- **(AI 실습 및 적용 환경 구축)** 배움을 넘어 AI를 직접 일상에 적용해 보는 실습 공간인 온라인 「모두의 AI 실험실」(<https://www.dpgtestbed.kr/>)과 지역별 AI 실습센터인 「AI 라운지」 구축
  - 「모두의 AI 실험실」에서는 클라우드와 GPU를 지원받아 나만의 AI 서비스를 자유롭게 설계, 실험
  - 전문가와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며 AI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오프라인의 「AI 라운지」를 전국 5개소에 구축



### 3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교육 제공

- **(초·중·고생)** ‘EBS 이숍’, ‘스쿨 AI’ 플랫폼을 통해 AI 맞춤형 콘텐츠 확대 제공. 2028년까지 ‘AI 중점 학교’ 2,000개 학교 확대
- **(대학생)** AI 중심대학, AI 단과대학, AI 거점대학 등 AI 특화대학 38개교 선정하여 AI 기초·활용 교육 필수화하고, 비전공자의 AI 융합역량 강화. 방송대(기본교육), KAIST(활용교육)의 강의를 무료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유

	전공 불문, 전교생 AI 교육 강화				방통대·KAISTAI 우수강의 무료수강	
대학생	<b>AI 중심대 10개교</b> 선정('26)	<b>AI 단과대 1개교</b> 운영('26)	<b>AI 거점대 3개교</b> 선정('26)	<b>전문대 24개교</b> 선정('26)	<b>AI 기본교육(방통대), AI 활용교육(KAIST) 콘텐츠</b> 무료 제작·공유	
	'30년까지 30개교 선정·운영	'4대과기원으로 확대(27년)	지역거점국립대에 단계적 확대(27년~)	'AID 전환 중점전문대로 운영		
*콘텐츠를 K-MOOC 등 타 플랫폼에 공유, KAIST KOOC 플랫폼 구축						

- **(일반인)** 구·재직자(STEP), 소상공인(소상공인지식배움터), 일반성인(K-MOOC) 등 상황별 맞춤형 AI교육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무료 이용. 내일배움카드와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해 연간 10만 명 대상 AI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 13.6만 명 대상 기업 자부담 면제 등을 통해 AI 교육 지원. 집 근처 AI 디지털배움터와 AI 특화 과학관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 AI 경험



- **(공무원·군인) 인재개발플랫폼의 'AI 전용관'을 통해 연간 31만 명** 공무원 대상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군 장병은 **국방 AI 교육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부대 집합 교육 활용
- **(교원·강사) 모든 교원 대상 연수 실시(~'30년 누적 55만 명 목표), 정보·수학 교원 등에 대한 맞춤형 연수** 시행(5월~). 현장 AI 교육 수요 대응을 위해 **AI 디지털 강사(연간 1,000명 규모), 직업훈련 강사('26년 1.2만 명, '27년 연 2.7만 명) 양성**
- **(고령층·취약계층) 디지털배움터를 AI디지털배움터로 개편, AI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허브로 활용.** 대형마트·주민센터·경로당·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지역 인프라 곳곳으로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교육' 확대**

#### 4 방송대예의 시사점

- **(방송대 학습자의 사업 수혜를 위한 참여 및 홍보)** 국내 성인대학생의 상당수가 방송대 재학생임을 고려, 대국민 수혜의 AI 인프라 및 관련 사업에 방송대가 적극 참여하거나, 사업에 대한 알리를 확대 함으로써, 방송대 학습자의 AI 역량 향상 및 서비스 수혜 기회 확대 추구

**참고 (총장 공약 사항) ④ 모두를 위한 공공대학 실현\_2-②AI 기본 사회를 위한 AI 교육 허브 구축**

- AI 기본사회를 위해 시시대 공공대학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디지털 역량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본부와 지역대학을 연계한 전 국민 AI·디지털 교육 허브 구축으로 정부의 디지털 포용 정책과 보조

- **(대국민 AI교육 관련 방송대 참여 사업 포지셔닝 설정)** 전 국민 대상 AI 접근, 학습,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참여 사업이 전 부처 단위로 추진됨에 따라, 방송대의 특·장점을 고려한 대국민 AI 관련 사업의 참여 방향 및 전략 도출 필요

**예시 [방송대 교육 대상 특화 사업 연계]** 성인대학생 맞춤형 AI 기본교육, 방송대 전공 연계 재직자 AI 활용교육 프로그램, 성인학습자 맞춤형 고등평생교육 참여 AI 튜터링 사업 등

- **(방송대 vs 국가 및 타 기관 플랫폼 기반 사업 차별화 접근)** 유노캠퍼스, 사이트길 등 방송대 플랫폼 활용의 사업(예. 'AI 한글화 사업')과 국가 및 타 기관 플랫폼 기반 사업을 구분하여 접근함으로써, 정부 정책사업의 참여 반경을 넓힘과 동시에 자체 사업 추진 필요의 타당성 확보

**예시** 방송대 추진 예정인 세종시의 'AI교육지원센터' 사업을 '시라운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모두의 AI 실험실」 등에서 제공하는 자원과 도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민과 방송대 지역대학 학습자들에게 AI 실습 기회 제공. 또한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예정인 AI 교육지원센터(지역인재 양성사업 관련)에 대학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기반 정책사업에도 동시 참여 기회 확보

\* <자료출처> 전 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26.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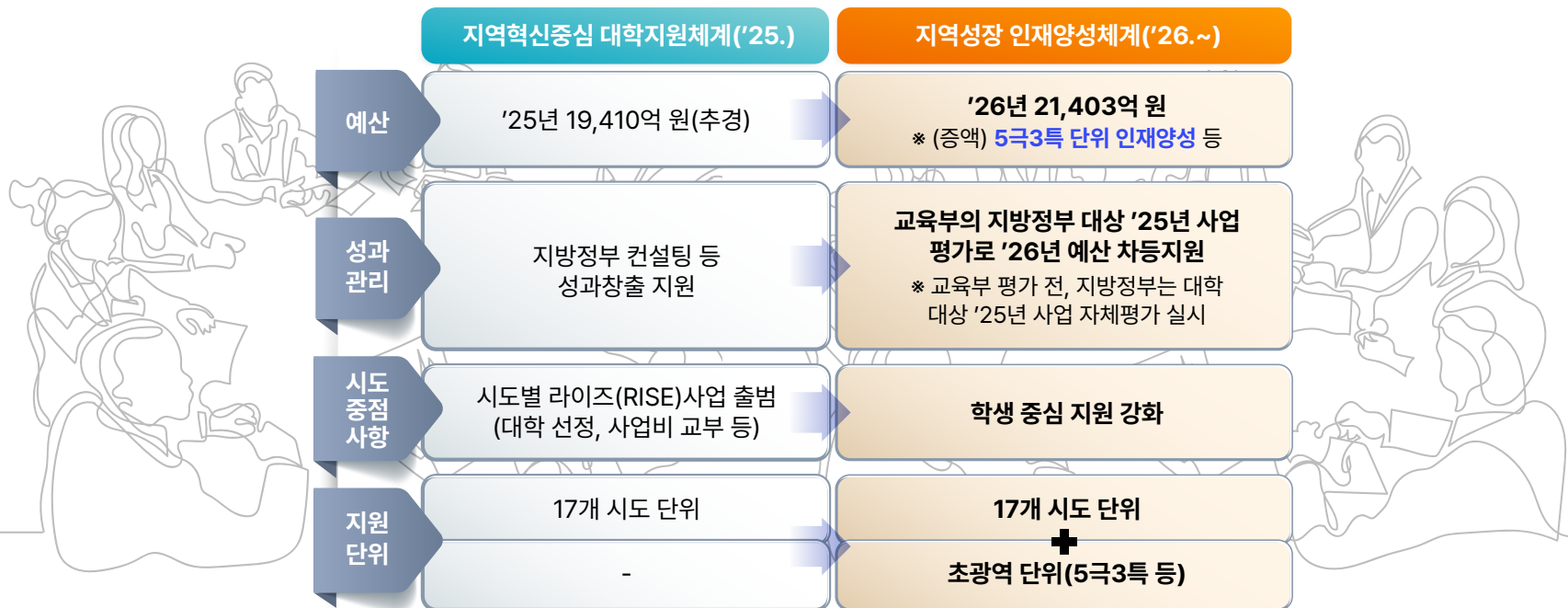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

★ 교육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목표로 지역인재의 양성과 정착을 추구하기 위해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26.4.2.). '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의 명칭으로 시작된 해당 사업은 사업 추진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업명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역 기반의 대학지원체계 재구조화 정책의 변화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우리 대학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대학정책사업 참여의 향방을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 1 사업 재구조화(라이즈 ⇒ 앵커) 개요

- (목적) 기존 RISE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제의 효과적 조성을 위해 재구조화 수립
- (주요 내용) i) 성과 평가로 사업예산 차등 지원, ii) 성과평가 인센티브 자원 활용으로 학생 체감도 높은 과제 중심으로 재구조화, iii) 5극3특 발전전략에 따른 초광역 단위사업 추진

<(참고) 정책 재구조화 주요 내용>



## 2 지방정부의 인재육성 역량 강화

- (추진 전략) 범부처 인재양성-취·창업-정주 등에 관한 정책과 연계한 지방정부 사업 모델 확대, 지역발전전략, 대학·산업 특성, 당면 현안 등을 고려한 지역 고유 모델 발굴 및 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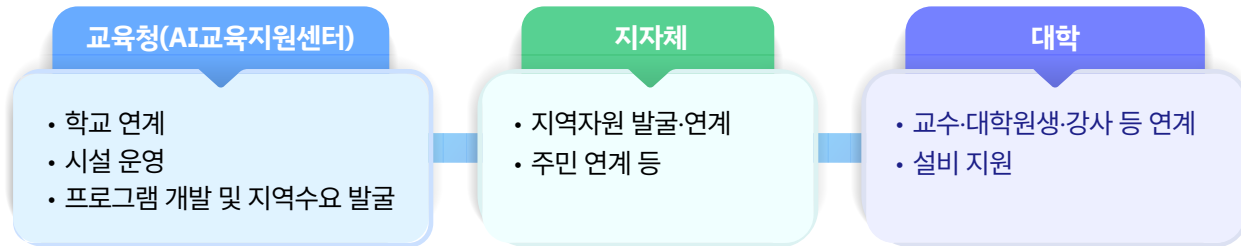
○ (주요 과제) ① **지산학연 협력**, ② **지역인재 역량 강화**, ③ **직업·평생교육 혁신**

영역	내용
지산학연 협력	▶ 지역형 계약학과, 산업체 현장실습·인턴십,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등 <b>현장인재 양성</b> ▶ 석·박사생 등 참여 지역기업-대학 <b>공동연구·기술사업화, 산학연 협력 인프라 강화</b> 등 ▶ 학생 유망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도록 <b>창업가 연계 창업교육, 인프라 지원 강화</b>
지역인재 역량 강화	▶ <b>AI교육지원센터-지역 간 협력 강화</b> ▶ <b>지역 기초학문 교육·연구 활성화</b>
직업·평생교육 혁신	▶ 지역 산업의 <b>재교육·향상교육 수요</b> 를 반영한 <b>성인친화 교육과정 운영 (개방형 전문대학)</b> ▶ 대학의 <b>평생교육 체제 확장 (생애학습 캠퍼스)</b>

- (**지역인재 역량 강화\_AI교육지원센터**) 지역 내 학생 대상 **AI 교육의 거점인 'AI 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초·중등 AI 교육 관련 교육청-지자체-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 기존 17개 시·도 교육청별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운영 중이며 '26년 서울, 광주, 대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

<(예시) 지역 내 초·중등 AI교육 강화를 위한 역할 분담 체계>



- (**직업·평생교육 혁신\_개방형 전문대학**) 학령기 중심 교육체계에서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평생·직업교육 체계로 전환하는 전문대학 모델**.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비학위 단기·모듈형 교육과정**을 개방하고, 이수성과를 인증·누적하여 **비학위-학위로 연계 가능한 개방·유연 학사운용 체계** 구축. 성인학습자 재교육, 직무 전환 기회 확대

- (**직업·평생교육 혁신\_생애학습 캠퍼스**) 대학을 전 생애 학습·경력개발 공간인 **'생애학습 캠퍼스'**로 전환. 다양한 학습자를 포용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체제 혁신(학사 운영체계 유연화 및 성인학습자 지원체계 구축). 대학 캠퍼스의 개방을 통한 지역 평생학습 거점화

**3 5극3특 및 초광역 체제로 재구조화** ≡

○ (**거버넌스 재구조화**) 5극3특 행정 통합에 발맞춰 **지역 거버넌스를 재구조화(17개→8개)**하고, **8개 권역별 초광역 센터·위원회를 신규 구성**하여 해당 사업 전담 관리

- 행정 통합 이전까지는 기존 체계 함께 존치하여 시·도별 사업을 지속 관리하는 한편, 행정 통합이 완성된 시·도는 단일 위원회·센터로 일원화하여 운영

○ (**5극3특 공유대학**) 5극3특 권역 단위의 공유대학을 구성해, **지역 학생들에게 대학 간 강점을 결합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및 석·박사 R&D 기회 제공(\*국립대 육성사업 연계 추진)** '26년 1,200억원 (4년 지원 원칙)

- 5극3특 거점대와 국중, 사립, 전문대 공유대학(9개), 필요시 수도권 등 타권역 대학 포함  
- 공유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공동 연구 추진, 공유 활용 플랫폼 구축 및 자원 공유

## 4 방송대예의 시사점

- (국가 정책 방향과 조응하는 지역 기반 사업 참여 방향 및 전략 수립) 새롭게 변화된 '지역성장 인재 양성' 접근과 관련하여 방송대 교육목적 및 정체성을 고려한 지역 기반 사업 참여 방향 및 전략 수립 필요. 일반적 지역 평생교육 수요 기반의 사업에서 자격 및 학위 기반의 지역인재양성 전략으로 사업에 접근할 필요

**참고** 총장 공약 사항\_3 평생학습 선도대학 도약\_3. 공공 자원 사업 발굴·참여

국가 평생교육 정책의 실행 거점으로의 역할 수행 및 지역 기반 교육지원 사업에의 참여

**참고** 총장 공약 사항\_4 모두를 위한 공공대학 실현\_1.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는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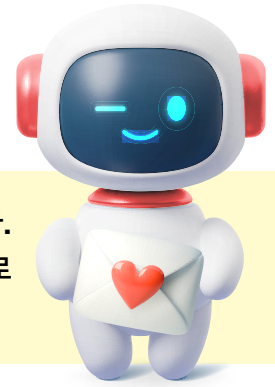
지역대학을 교육·평생학습·디지털 서비스·시민 커뮤니티가 결합된 열린 거점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및 협력사업 운영

- (방송대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거버넌스 구축 고려) 전국 대학이자 지역 기반 대학이라는 방송대 특성을 고려하여, 공유대학에 결합하는 지역-수도권 대학 연계 모델, 또는 광역 단위 지역 사업에 직접 연계되는 지역-지역대학 연계 모델 등 사업 추진 거버넌스를 다각적으로 고려

\* <자료출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재구조화- 교육부 보도자료 (2026.4).



# 해외대학 AI 에이전트 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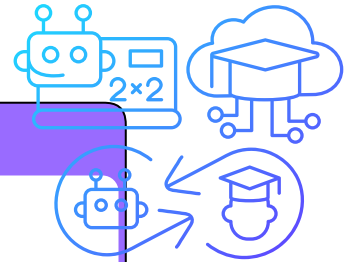


★ 해외 주요 대학들은 학습과 학사 운영을 위한 상시 지원 체계에 AI 에이전트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정책과제에서 제시된 해외 대학의 AI 에이전트 대표 사례를 4가지 기능 유형으로 살펴보고, 해당 사례가 우리 대학의 학습 지원 체계 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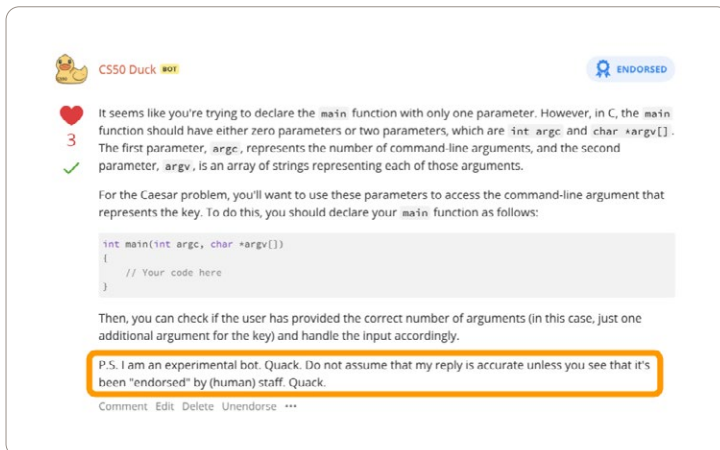
-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에이전트 AI 기술 발전의 배경하에 원격대학으로서 우리 대학이 학습지원 체계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 시스템 설계 및 실행 로드맵 연구(2025, 과제책임자: 서희정 선임연구위원)」 수행
- 이하에서는 해외 주요 대학의 AI 에이전트 도입 및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대학의 교수·학습 지원과 행정 운영에 AI 도입의 시사점 도출

**유형 I** 교과목 학습지원 및 문답형 튜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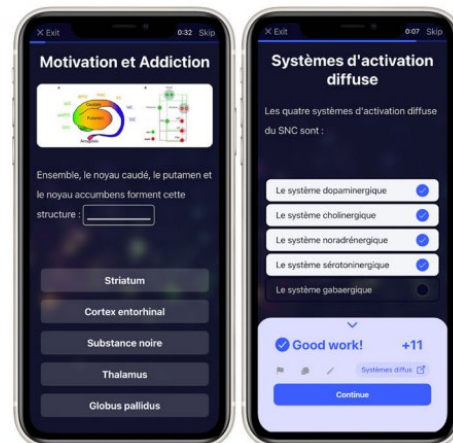
- 24시간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원격학습자의 고립감 해소 및 학습 몰입 지원
- 반복 질의 자동화로 교수자는 심화 지도와 교수 전략 설계에 집중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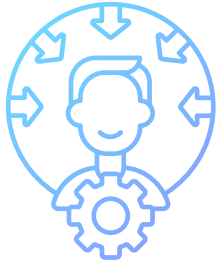
- 하버드대학교 CS50 Duck, 조지아공과대학교 Jill Watson 등 단일 교과목 특화 AI 조교로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교수자의 반복 질의 부담을 완화하고 심화 지도에 집중하도록 설계
  - ※ Jill Watson: 2016년 도입 이후 교과목 튜터링 에이전트의 장기 운영 사례에 해당
- 독일 IU 국제응용과학대학 Syntea, 스위스 UniDistance Suisse AI 튜터 등은 원격학습자의 학습 시간 단축과 성취도 향상 효과 보고. 원격대학 맥락에 적합한 튜터링 설계 방향 제시



하버드대학교의 CS50 Du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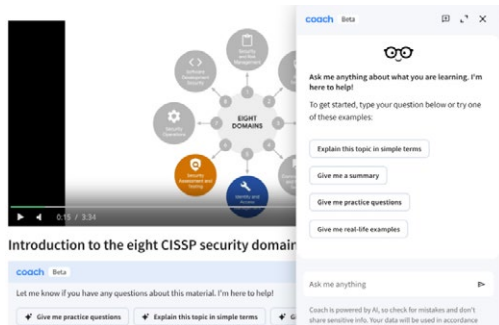
스위스 UniDistance Suisse의 AI 튜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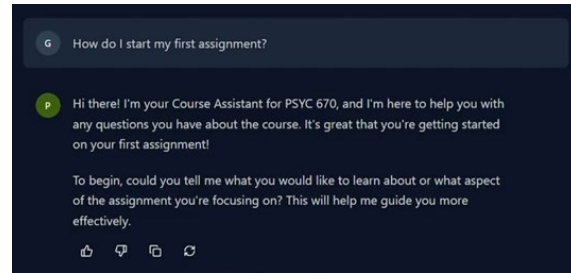
**유형 II 메타인지 향상과 자기주도학습 코칭**

- 소크라테스식 발문을 통해 메타인지와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 성인학습자의 내재적 동기와 자기효능감 강화에 기여

- 로스앤젤레스퍼시픽대학교(LAPU) Spark, Coursera의 Coursera Coach 등의 코칭형 AI는 정답 직접 제시 방식보다 대화형 질문과 단계적 힌트로 학습자의 사고 유도
  - ※ 성인학습자 중심의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발문형 코칭이 학업 몰입과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에 효과적(Hanshaw et al., 2025; Wong et al., 2023<sup>1)</sup>)



Coursera의 Coursera Co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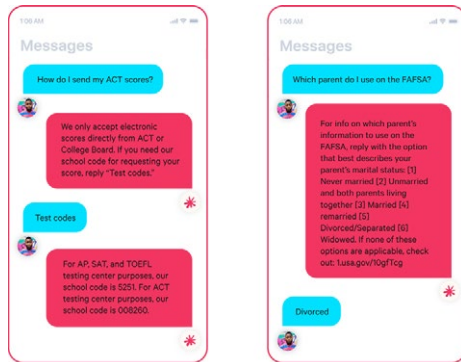
LPU의 Spark AI 튜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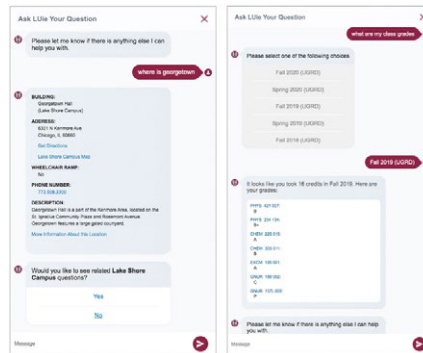
**유형 III 학사 행정 및 중도탈락 예방**

- 데이터 기반 위험군 학생 조기 식별 및 맞춤형 개입 제공
- 행정 문의 자동화에서 학습 참여 독려까지 기능이 단계적으로 확장

- 조지아주립대학교 Pounce는 2016년 신입생 미등록 완화를 위한 학사정보 및 등록 절차 알림 챗봇. 그 후 강의 특화 PalsPounce 도입으로 과제 수행과 학습활동 참여 독려까지 포괄
- 로올라대학교시카고 LUie는 수강신청, 장학금, 수업일정 등 학사 행정 민원에 24시간 응대하는 챗봇으로, 학생의 서비스 접근성과 교직원 업무 효율을 동시에 높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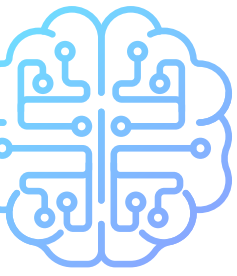


조지아주립대 Pounce



로올라대학교시카고의 LUie

1) Hanshaw, G., Huett, J. B., & Brewer, J. (2025).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 of AI course assistants on student grade outcomes. *Open Praxis*, 17(2). <https://doi.org/10.55982/openpraxis.17.2.772>  
 Wong, J., Maldonado, R., & Coursera Learning Science Team. (2023, November 2). Coursera Coach: Leveraging GenAI to empower learners. Coursera Blog. <https://blog.coursera.org/coursera-coach-leveraging-genai-to-empower-learners/>



**유형 IV 플랫폼·거버넌스 및 AI 리터러시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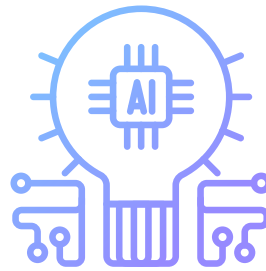
- 대학 전용 AI 인프라와 윤리적 평가 체계의 통합 운영
- 학습자·교수자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과정 제도화

- **애리조나주립대학교(ASU) CreateAI, MyAI Builder** 등 대학 내 AI 플랫폼을 통해 AI 도구를 안전한 환경에서 개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공정성, 정확성, 편향 완화 등의 기준으로 AI 도구를 검토하는 Ethical AI Engine 함께 운영
- **영국 Open University는 Critical AI Literacy Skills** 프레임워크를 통해 포용성, 형평성, 다양성, 접근성을 원칙으로 교직원과 학생의 비판적 AI 활용 역량 지원

구분	ASU (CreateAI)	Open University (Critical AI Literacy)
목적	대학 전용 AI 플랫폼 구축과 윤리적 평가 체계의 통합 운영	대학 구성원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과정 체계화
구성	CreateAI, MyAI Builder, Ethical AI Engine (정확성, 공정성, 편향 평가)	포용성·형평성·다양성·접근성을 원칙으로 한 6개 영역의 리터러시 프레임워크
대상	교직원 및 학생 (AI 도구 활용자 및 개발자)	교직원 및 학생 (리터러시 교육 수혜자)

**방송대 학습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

- **(AI 에이전트 도입의 단계적 접근)** 조지아주립대 'Pounce'의 '신입생 이탈 방지 → 강의 학습 참여 지원 → 과제 수행 독려'로 이어진 단계적 확장 경로의 사례 고려, 방송대도 중도탈락 예방을 출발점으로 향후 추가 기능의 확장을 사전에 고려하여 설계, 접근
- **(발문형 및 코칭형 에이전트 우선 검토)** 성인학습자 중심 원격대학의 특성 반영하여 LAPU Spark와 Coursera Coach 등의 사고 과정 유도 방식의 에이전트 도입 고려. 재학생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교수-학생 상호작용 부족 및 소속감 저하 문제의 보완 수단으로 기능 가능
- **(전공에 따른 차별화된 튜터링 설계)** CS50 Duck과 Jill Watson은 정답 경계가 비교적 명확한 컴퓨터 과학 교과에서 운영된 사례라는 점을 고려, 방송대 다양한 전공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학문 영역별 튜터링의 단계적 구축 필요
- **(AI 리터러시 및 거버넌스 구축)** 영국 OU의 Critical AI Literacy Skills 프레임워크와 ASU의 Ethical AI Engine은 교수자, 학생 대상의 AI 윤리 교육과정과 공정성 및 편향 관리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 또한 도입 효과는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이수율과 학점 취득, 중도탈락률 등 학생성공 지표로 검증되도록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체계의 사전 구축 요구



\* <자료 출처> 서희정, 김명진, 최재원, 안해연(2025).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 시스템 설계 및 실행 로드맵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정책연구 25-3.